복음신문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주년
표 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7년 4월 1일 (토) 제 761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김 성 제 · 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青丘文化社

부활절 주일설교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면

<요한복음 11:25-26>

권 윤 일 목 사 (浜松교회)

봄이 왔습니다.

한겨울 동안 얼어 붙었던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새순이 돋고 봄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봄이 되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봄과 같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믿음도 사라져가는 소망도 보이지 않던 사랑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신앙은 항상 봄에 피는 꽃과 같이 새순과 같이

약동하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딱딱해 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모두에게 희망이고 빛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예수님이 장차오실 메시야이고 이세상을 구원하실분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들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나라를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체포당하고 법정에 끌려다니며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설마 설마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너무도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제자들은 속았다는 마음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옛직장을 찾아 갔습니다. 3일이 지나고 몇 몇 제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다른 제자들 약 500여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확신이 다시 생겼습니다. 딱딱해진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이 확실해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도 나타나고 마지막 순간 순교 당하는 일이 있어도 담담하게 오히려 기쁨 가운데 순교를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부활은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살아있게 합니다. 불신이 사라지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역전의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움과 함께 절망에 빠져듭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물거품이 되버린 것입니다. 생존경쟁속에 있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망적이됩니다. 그것은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보십시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된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으로 부터 전달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실패, 패배, 죽음, 사건, 사고는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한 성령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모두 확실한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부활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음을 버렸던 우리를 책망하시기 보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배신하는 일없이 마지막까지 주님과 더불어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딱딱해진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부활되고, 흐려진 소망이 확실하게, 기력이 없던 삶에 힘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여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과 함께 새 출발입니다. 새출발!!!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YMCA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 込	平 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마이너리티 선교 센타 개소에 즈음하여

설립준비위원장 김 성 제

재일코리안을 향한 헤이트스피치가 그치지 않고 있던 2014년 가을, 재일대한기독교회(KCCJ)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2015년11월18일 부터 21일에 걸쳐, 동경의 재일본한국YMCA를 장소로 하여 〈헤이티스피치를 극복하고 공생의 장막을 펼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3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최자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외침에 호응하는 일본기독교협의회(NCC), 일본기독교단, 일본기독교회, 일본침례교연맹, 일본침례교동맹, 일본캐톨릭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 웨슬리재단 등이 공동주최를 하였고, WCC(세계기독교회협의회)와 일본성공회 등이 후원단체가 되어 청년 프로그램(11/15-17)을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130여명이 참가하여 대단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에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폐막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동성명문에 명시한 대로 〈마이너리티 선교 센타〉 설립을 향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승인과 국제회의에 참가한 교단 및 단체의 대표들과 함께 후속회의를 거듭하였으며 2016년 후반부터 마이너리티선교센타 설립 준비회의를 거듭하면서 드디어 2017년 4월 8일에 정식으로 〈마이너리티 선교 센타〉 (Center for Minority Issues Mission ; CMIM)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너리티 선교 센타의 활동은 ①인종주의와의 투쟁, ②청년 선교, ③화해와 평화의 영성 개발, ④일본교회 및 세계교회에 발신을 사명으로 하여 전개하게 됩니다.

이미 현대 일본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 문제의 현상과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배우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다양한 그룹과 커뮤니티를 횡단하는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주최가 되어 2017년9월, 大阪에서 유스 포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 차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배움의 장소로서 CMIM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며, 마이너리티에 관한 에큐메니칼 신학적 사고와 실천을 심화하기 위한 신학 세미나 혹은 신학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도, 댄스, 연극, 가스펠, 예배 등을 통하여 배타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 〈다문화 공생〉을 입체적 · 영적으로 나누는 표현의 장으로서 〈페스티발〉를 개최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이너리티 담당자들이 모여서 실천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함께 반 차별 운동을 전개 해 나가기 위하여 <마이너리티 원탁회의>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선교 센타〉는, 누가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가? 라는 큰 물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장막을 펼치는〉 실천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벌써 해외교회를 비롯하여 뜨거운 성원과 많은 지원의 뜻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마이너리티 선교 센타〉를 짊어지고 갈 실무자로서 재일대한기독교회 横須賀교회 김신야목사와 캐나다장로교회(PCC)에서 신도 선교사로 파견받은 데이비드 매킨토시(David McIntosh)선교사가 공동 주사(共同主事)로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배타주의에 대항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거점으로서의 〈마이너리티 센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CC교육부 평화교육 자료센타〉 드디어 오픈

5월29일(월) 부터 월·수·금 개관

NCC(기독교협의회) 교육부에서는 교회교육 · 평화교육 · 인권교육을 세 기둥으로 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평화 연결 헌금〉, 〈기독교 교육 주간〉, 〈한/일/재일 청소년 캠프〉, 〈전국교회 패스티발〉, 그 외에도 각종 세미나와 인권교육입니다.

〈평화 연결 헌금〉은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국내외의 어린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헌금 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이누 민족 어린이들의 교육지원,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지원, 오키나와 기지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과의 연대와 평화교육 추진은 이제부터라도 계속해 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더 나은 추진을 위하여 NCC교육부는 11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5월에 NCC 교육부 평화교육 자료센타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집해 두었던 기독교 교육 역사 자료를 전시하여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전망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결의와 함께 과거 전쟁협력 교재도 적극적으로 전시하고저 합니다.

평화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독교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작은 자 옆에 함께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센터 개설을 지원해 주시며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협력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総主事 比企敦子)

＊開館日：月·水·金　＊開館時間：12時30分～17時
＊入場料：常設展示¥200　中高生¥100　(小学生以下無料)
特設展示¥500
(団体としての入館、開館日以外の希望については、事前にご相談ください)
＊主な展示資料の説明やリーフレットは、4言語(日·英·韓·中)

서부지방회

神戸東部教会 목사위임식 거행

중국조선족 한승철목사가 제4대 목사로

3월5일, 서부지방회 고베동부교회에서는 한승철목사의 위임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한세일목사(고베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성우목사(아카시교회)의 [복의 들녘](창세기13:14-15)이라는 설교로 예배를 드렸다.

위임식에는 서부지방회장 김승희목사의 사식으로 위임 서약과 선언이 있은 후, 양영우목사(무코가와교회)가 위임목사에게, 부총회장 윤성철장로(고베교회)가 교우들에게 각 각 권면을 하고, 축사는 총간사 김병호목사, 교회부흥 효고협력회 키치카와쥰목사가 하였다.

고베동부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목회를 위임받은 한승철목사는 1968년 중국에서 출생하여 북경임업대학공학부(중국), 관서학원대학 신학연구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005년 고베동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2011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고베동부교회 전도사, 2015년4월에 서부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2015년 5월부터 2016년10월까지 고베동부교회의 부목사로 봉사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인 허상단사모와 두 자매가 있다.

서부지방회

신도 수양회를 개최

55명이 모여 친밀한 교제와 은혜

2017년 3 월19일 (일) ~ 20일 (월) 에 효교현 히메지시의 뉴-산피아히메지유메사키에서 서부지방회신도수양회가 개최되었다. 본수양회는「너희가 식사를 주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일본기독교교단 久万교회 (愛知県) 담임목사인 小島誠志 목사를 강사로 초빙했다. 1 일째의 개회예배는 한세일부회장 (고베교회) 가「열매맺는 우리들」(요15 : 1 -15) 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제 1 강에는「너희가 식사를 주어라」(막 6 장30-44)、둘째날 제2강은「물을 옮김」(요 2 장 1 -11) 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수확이 보이지 않는 이때를 인내하면 마지막 주를 만나게 될때 수확을 보게 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둘째 날 새벽기도회는 한승철목사 (고베동부교회) 가「하나님의 계획」(엡 3 장 1 -13) 폐회예배는 김승희지방회회장 (오카야마교회) 가「하나님은 어김이 없다」(수23장 : 14-16) 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55명 (유아 3 명) 이 참가하여 친밀한 교제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1 박 2 일이었다. (보고자 윤성철장로)

서부지방회

西宮教会 목사위임식 거행

일본 온지 29년 김영주목사가 부임

3월26일, 서부지방회 니시노미야교회에서는 김영주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1부 예배는 임시당회장 이성우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수천명예목사의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22:37~39)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2부 위임식에는 서부지방회장 김승희목사의 사식으로 위임목사에 대한 서약과 니시노미야교회 신도들에 대한 서약이 있은 후 위임목사 된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위임목사에 대한 권면을 양영우목사가, 니시노미야교회 신도들에 대한 권면을 양창희장로가, 축사는 총간사 김병호목사, 일본선교협력회 김안홍목사가 하였다.

금번 니시노미야교회 담임목사로 목회를 위임받은 김영주목사는 1963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결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유학와서 오사카기독교학원 본과를 졸업, 또한 도미하여 Azusa Pacific University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1996년 서남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후쿠오카교회 부목사, 사카이교회 담임목사로 섬겼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경희사모와 1남이 있다.

서부지방회

新居浜그레이스교회서 김선영장로 장립식거행

3월12일 서부지방회 니이하마그레이스교회에서는 김선영장로 장립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담임목사 안진남목사의 사회와 지방회장 김승희목사의 사식으로 서약과 선포, 강판국장로(히로시마교회)의 권면과 일본기독교단 다카마츠교회 무라카미다카시목사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금번 장립을 받은 김영선장로는 1972년 한국 부산에서 출생하여 2001년부터 가와니시교회, 2008년 부터 니이하마그레이스교회의 집사로 섬겨왔다.

서부여성회

회장희의 및 1일연수회

각교회의 귀중한 역할 확인,격려

서부지방회 여성연합회「회장 희의 및 1일연수회」가 3월 9일(목)에 고베동부교회에서 개최되어26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는 박영자부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한승철목사 (고베동부교회) 에 의한「함께 공감하는 공동체」(롬12;9-16) 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계속해서 최미에코회장의 사회로 회장 회의가 진행되었다. 각교회의 여성회 회장으로부터 연간 활동보고가 있었고 각 여성회는 회원수、상황은 달라도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활을 감당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서로 격려하였다.

애찬회는 고베동부교회 여성회에서 정성어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 오후부터는 연수회의 강사로 나가에요이치목사에 의한「치유받은 여성들」부제「교회에 있어서 여성의 역활은?」의 강의가 있었고 은혜가 풍성한 회장회의 및 연수회였다.

(보고자 유정혜)

중부지방회

합동신도연수회 가져

2번의 강연 통해 신도로서의 삶 배워

중부지방회 합동신도연수회가 지난 3월 20일~21일 양일간 〈종교개혁과 교회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성희목사(연동교회) 를 강사로 초청하여 가졌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전병옥목사의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첫째 날에는 두 차례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는데, 첫번째는 〈세계화시대의 재일대한기독교회〉라는 주제로, 두번 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를 들었다. 또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 지방회가 하나되기 위해서와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

21일 세번 째 주제강연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강의를 듣고 전반적인 그룹 토의를 한 후에 서기 최화식목사의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로 폐회예배를 드린 후에 해산 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서 일본에서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종교개혁의 역사적 흐름, 교회 안에서의 훈련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을 얻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보고 : 최화식목사)

중부지방교회여성회

일일연수회 열어 성경공부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강습회도 동시에

중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는 2월21일 나고야교회에서 일일연수회를 가졌다.

오전에는 1부로 기후교회 고성 목사를 강사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 '성경 통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강연을 들었다.

점심을 먹고 2부에는 기후교회 이카이유리에 집사를 강사로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강습회를 가졌다.

나가노, 오가키, 기후, 나고야에서 26명이 모여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보고 · 김진명)

5地方会 定期総会 案内

＜関東地方会 第68回 定期総会＞
・日時：2017年４月29日（土）10：30
・場所：在日本韓国YMCA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03-3233-0611

＜中部地方会 第54回 定期総会＞
・日時：2017年５月４日（木）11：00
・場所：豊橋教会
愛知県豊橋市大村町字花次85-1、℡0532-54-7019

＜関西地方会 第68回 定期総会＞
・日時：2017年５月５日（金）10：00
・場所：京都教会
京都市右京区西院北矢掛町20、℡075-311-5051

＜西部地方会 第33回 定期総会＞
・日時：2017年４月29日（土）10：30
・場所：神戸教会
神戸市長田区梅ヶ香町1-2-20、℡078-682-3595

＜西南地方会 第67回 定期総会＞
・日時：2017年４月25日（火）11：00
・場所：小倉教会
北九州市小倉区大田町14-31、℡093-521-7271

유학소식

한국에서 어려움보다 즐거움, 아픔보다 감사의 나날

한 성 돈 (총회신학생)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3세이며 소속은 관동지방회 니시아라이(西新井)교회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일본에서 잘 공부를 하며 대학교를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에 시간은 걸렸지만 여러 교우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 하게 되었고 올해 2학년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에 문화충격과 역사적 충격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일본이라는 시선이 이런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일동포라는 인식이 이렇구나 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학부에서 만났던 선배님, 그리고 동기들 친구들 덕분에 어려움 보다는 즐거움을, 슬픔보다는 기쁨을, 아픔 보다는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학부 때는 교육학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 심리학, 종교심리, 아동교육 등을 공부를 했고 지금 신학대학원에서는 구약, 신약을 더 깊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히 많아서 중세교회사를 위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서울 근교의 분당에 있는 가나안교회에서 초등학교 1~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어와나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7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랑 말씀과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전과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너무나도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유학생을 위해서 또한 일본에 있는 신학생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